

고해상도 광경으로 재생되는 쓰라리도록 황홀한 도시 풍경

임상빈

任相彬

Sangbin IM

sangbinim@hotmail.com

www.sangbinim.com

(1) 나의 이야기: 현대 사회의 풍경이 드러내는 치명적인 매력, 미디어 문화가 조장하는 끝없는 욕망, 이미지 구축을 통한 인식적 황홀경,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통한 큐레이팅의 미학

나는 다양한 요소들을 아이러니하게 혼재시킴으로써 긴장을 유발하고, 매력을 발산하며, 나아가 여러 가지로 시사점을 주는 걸 좋아한다. 예를 들어, 내가 그 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개념적인 대립항은 실제와 가상, 일상과 이상, 풍경과 인식, 객관과 주관, 재현과 표현, 구상과 추상, 흐름과 반발, 연결과 충돌, 총체와 파편, 같음과 다름, 일원과 다원, 과거와 현재, 자연과 인공, 인간과 건물, 아날로그와 디지털, 물성과 이미지, 평면과 입체, 정지와 동작, 사물과 공간 등이다. 물론 이 밖에도 많다. 이들은 나의 사상계에서 지속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도 끊임없이 긴장하고, 충돌하며, 미끄러지거나, 어긋나면서 다양한 드라마를 연출한다.

나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래서 여기가 익숙하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시를 마냥 사랑하기만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복합적인 감정이 혼재된 **애증의 관계**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싫은.. 물론 도시를 영원히 벗어나고 싶은 게 아니다. 여기가 나의 나 됨을 형성해온 토양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여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유하며 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예를 들어, 한 개인으로서 도시의 판타지를 그려내며, 그게 풍기는 매력과 내포한 위험의 이중성을 목도하고, 자본주의가 주는 달콤함과 씹쓸함을 음미한다.

내게는 중요했던 도시와 관련된 경험 다섯 개, 시간 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의 위험성**!' 1982년, 우리 집 앞의 개천을 가로지르는 시멘트 다리에서 나와 대화하던 친구가 그만 발을 헛디뎠다 갑자기 아래로 추락하는 걸 목도했다. 매우 무서웠다. 둘째, '**인식의 풍경**!' 1985년, 세계화의 욕망이 빚어낸 63빌딩이 완공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접했다. 뭔가 이상했다. 셋째, '**삶의 허무함**!' 1995년, 서울 한복판의 삼풍백화점 참사를 피하면서 거대 구조물이 좌지우지하는 인간의 운명을 체감했다. 정말 놀라웠다. 넷째, '**도시의 역동성**!' 2003년, 뉴욕에 도착한 첫날,

마침 미국의 역사적인 대규모 정전사태를 접하게 되면서 도시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깊숙한 영향을 숙고했다. 참으로 묘했다. 다섯째, **'자본주의의 실상'**! 1997년과 2008년, 거품경제의 위기 속에서 정부와 기업이 추동하고 부채를 떠안은 가계가 함께 들쭉였던 자본에 대한 욕망과 투기 중독이 많은 이들을 옴아매고 피폐하게 하는 걸 체감했다. 쓰디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는 훌훌 털고 도시를 산책하며 그 시간을 충분히 즐긴다. 여러 종류의 황홀경과 암울함에 묘하게 끌리며.. 즉, 한편으로는 도시의 기획에 찬사를 보내거나, 아니면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인간을 연민하는 거다. 비평적인 거리를 견지하며 도시 풍경 구석구석을 꼼꼼이 음미하거나, 혹은 그 속으로 뛰어들어 역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진에서 내가 주목하는 대표적인 소재 두 가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시공의 거대한 에너지'**! 투자의 기대와 투기의 욕망이 집적되고, 정보의 권력과 취향의 집중이 작동되면서 증폭된.. 참으로 강력하다. 둘째, **'사람들의 집단 감수성'**! 도시가 발산하는 매력적인 외양에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이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를 느끼는.. 참으로 여리다. 예를 들어, 정부나 대기업의 자본, 기술, 인력의 투입으로 탄생한 유명 장소는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한다. 마치 현대문명의 성지이자 왁자지껄한 공연장인 양.. 그렇게 되면,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만난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다방으로 집단적인 에너지를 표출하는 데에 참여한다. 별의 별 마음이 이리 얽히고 저리 설키며.. 참으로 복잡 다단하다.

사진에서 내가 선호하는 대표적인 이미지 두 가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치 내가 수줍어했던 적이 언제 한번이라도 있었냐는 듯이 **'당당하게 자신을 뽐내는 풍경'**! 이는 **'초실제적 극사실성'**을 지향한다. 즉, 너무 사실적이어서 실재를 초월할(실제보다 더욱 실제인 듯한) 정도이거나, 혹은 실재를 초과해버리는(실제의 영역을 넘어 이를 완전히 이탈해버리는).. 둘째, 창의적인 몰입감과 비평적인 거리감을 묘하게 만들어내는 **'풍부한 맥락을 가진 풍경'**! 이는 **'탈의도적 초의미성'**을 지향한다. 즉, 작가의 의도가 동기로만 끝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의미로 연결되는, 나아가 작품의 의미가 하나로 규정되며 멈추기 보다는 끊임없이 확장하고 심화하며 다면적인 해석으로 나아가는..

사진에서 내가 드러내는 대표적인 내용 네 가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명적인 매력'**! 나는 **'현대 사회가 만들어내는 달콤함과 씹쓸함의 아이러니'**에 주목한다. 막대한 자본의 투입으로 크고 높게 만들어진 거대 고층건물은 물질의 풍요와 상품의 향연으로, 또한 지구촌 관광지는 달콤한 휴식과 즐거운 여흥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 물론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풍경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도 느껴진다. 지금 지구촌은 무한경쟁의 생존게임으로 자본에는 거품이 끼고 시장은 포화상태에 도달했다. 즉, 누구나 즐거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하지 않다.

둘째, **'끝없는 욕망'**! 나는 **'미디어 문화가 조장하는 인간의 욕망'**을 연민한다. 대중미디어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구촌을 균질화, 표준화시켜 소비자 인구를 늘리고 자본 투자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이와 같이 미디어는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는 서로 간에 밀도 끝도 없는 '비교의식'도 조장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버릴 수 없는 욕망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결핍, 혹은 과도한 잉여의 굴레로 몰리게 되었다. 이제 욕망은 우리 모두의 주인이다.

셋째, '**인식적 황홀경!**' 나는 '**디지털 이미지 구축이 주는 몰입감과 진실성**'을 좋아한다.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1929-2007)는 현대사회를 극실재(hyperreality)가 난무하는 시대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걸프전의 TV 생중계를 거론하며 실재보다 더 실재 같은 이미지가 실재를 지배하고 대체하는 현상을 비판하였다. 물론 이미지 처리 기술의 발달로 사진은 법적인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예술로서의 이미지 구축은 사실의 재현이 아니다. 오히려, 그건 때에 따라 몰입해볼 만한 또 다른 종류의 진실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나의 세계관으로 표현된 인식의 풍경은 그 자체로 진실된 자신의 모습이다.

넷째, '**큐레이팅의 미학!**' 나는 작업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식**'을 즐긴다. 디지털 사진과 영상의 보급으로 마치 정보는 앞으로도 영원히 생생할 것만 같다. 한편으로 내가 축적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나의 작업을 위한 훌륭한 원천이자 동기가 된다. 또한, 인터넷 네트워크의 발달로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실로 무궁무진하다. 마치 영원히 마르지 않는 바다와도 같은.. 결국,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건 무한한 데이터베이스를 창의적으로 조직하여 새로운 데이터로 재구성해낼 줄 아는 처리능력이다.

(2) 표현의 방법론: 이미지의 집적, 복합적인 시선, 대립항의 관계, 장면의 연출, 넓고 깊은 광경, 조형적인 매력

서양화를 전공한 나는 사진 이외에도 회화, 드로잉, 영상, 설치, 사운드, 텍스트, 시, 인문학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실험적인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집중해 온 건 바로 사진 작업이다. 나의 사진 작업은 일상의 풍경을 고유한 방식으로 과장, 변형, 왜곡하여 새롭게 재해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우선, 거대도시의 건축물과 풍경, 주변의 인물을 다양한 시점에서 수백 장을 촬영한다. 다음, 디지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합하고 확장시켜 화면을 재구성한다. 마치 순간을 포착한 듯한, 그럴 법하지만 묘한 한 장의 이미지로 조합하며.. 나아가, 형태, 색채, 명암, 질감의 극적인 대비와 강조 효과를 통해 풍경의 스펙터클을 강화하고 재현한다. 여러 붓질을 중첩시켜 습윤한 회화적 풍경을 연출하기도 하며..

사진 작품의 제작을 위해 내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론 여섯 가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지의 집적!**' 이를 통해 현대 사회가 조장하는 거대한 힘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촬영 시 **'사진의 질뿐만 아니라 양'**을 중시한다. 모인 이미지들이 추후에 어떻게 쓰일지를 애초부터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기에.. 또한, 나의 경험을 한 장의 사진만으로 표현하기에는 여러 모로 아쉬움이 커서도 그렇다. 예를 들어, 나는 오랜 시간을 촬영지에 머무르며 풍경을 구석구석 관찰한다. 물론 나만의 감각과 오랜 훈련을 통해 형성된 감수성은 현장에서 촬영할 대상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경험 상으로 볼 때, 생각보다 많이, 그리고 꼼꼼히 찍는 게 보통 중요하다.

둘째, **'복합적인 시선'**! 이를 통해 현대 사회의 아이러니와 이에 따른 다차원적인 맥락을 드러낼 수 있다. 미디어 문화가 조장해낸 욕망의 시선도 포함하여.. 예를 들어, 나는 **'보이는 풍경뿐만 아니라 시선의 문제'**에도 주목한다. 풍경을 그저 대상으로만 취급하지 않고 상호간에 깊은 관계를 맺게 하려고.. 이를 위해 나는 습관적으로 주변의 풍경을 유심히 살펴본다. 더불어, 나 이외에 주변에 다른 시선들이 있을 경우, 이들 역시도 유심히 살펴본다. 나만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어떤 곳에서는 내가 보는 풍경이 도리어 나를 보거나, 보는 나를 내가 다시 보게 되는 진귀한 경험을 하기도 된다. 또한, 촬영 후에 사진을 검토하다 보면, 막상 그 당시에는 미처 보지 못한 걸 발견하게도 된다. 예를 들어, 나를 바라보던 시선의 존재를 그제서야 알아차리는.. 이는 복수의 공간이 파생되고 혼재되는 묘한 경험이다. 마치 내가 화면을 바라보는 원근법과 화면이 나를 바라보는 역원근법이 중첩되는 듯한..

셋째, **'대립항의 관계'**!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 내포된 매력과 위험성, 미디어 문화가 강화한 욕망과 좌절, 그리고 이미지 구축이 조장한 가상과 실재를 혼재시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대립되는 요소들을 관계 맺고 충돌, 긴장시키는 방식'**을 선호한다. 서로가 서로를 강조해주며 더욱 생동감이 넘치는 화면을 만들려고.. 예를 들어, 나는 개념적으로 다양한 대립항들의 만남을 한 화면 내에서, 혹은 다면화의 형식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보여준다. 아니면, 틀의 모양을 변형하거나 화면 내에 물리적인 구멍을 만들기도 하고.. 이를 통해, 이미지의 가상성과 사물의 물질성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도록 유도한다. 마치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풍경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보이듯이.. 혹은, 창틀을 넘어 생생한 현장에 참여할 수 있을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텀블링(tumbling)처럼 튕겨져 나오는..

넷째, **'장면의 연출'**! 이를 통해 적극적인 이미지의 구축과 큐레이팅의 태도를 전면에 드러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후반기 작업(post-production)'**에 오랜 시간을 투자한다. 보여주고 싶은 풍경의 몰입도를 극대화하려고.. 예를 들어, 나는 마치 전시기획자(curator)가 된 양, 때에 따라 적합한 이미지를 꼼꼼히 선별, 배치해보면서 나만의 콜라주 풍경을 구축한다. 물론 나의 외장하드에는 작업화되지 않은 수많은 사진들이 내가 자신을 선택해 주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작업할 시간은 언제나 부족하다. 그렇기에 사진을 찍은 시점과 작품으로 완성된 시점은 보통 상당한 시차가 있다. 수많은 사진들이 작업화되지

못하고 버려지기도 하고..

다섯째, '**넓고 깊은 광경!**' 이를 통해 현대사회와 미디어 사회의 자화상, 그리고 큐레이팅을 통한 이미지의 연출을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시원하게 조망되는 광경과 높은 해상도**'를 선호한다. 즉, 멀리서는 광경을 조망하고 다가가서는 사물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여러 위치에서 다양하게 음미할 수 있는 복합감상을 유도하려고.. 이를 위해 나는 보통 빈 화면의 중간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그리고는 마치 도시설계사(city planner)처럼 사진 이미지들을 정교하게 이어 붙이면서 광경의 면적을 조금씩 확장하며 전체적인 구조를 정해간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확장을 멈추고 구조를 마무리 지어야 할 지점을 파악하게 된다. 더불어, 나는 무대감독(stage manager)처럼 구체적인 이미지를 부단히 수정, 보완해가며 해상도를 높인다. 잘 보이지 않는 미장센(mise-en-scène)에도 세세하게 신경을 쓰며..

여섯째, '**조형적인 매력!**' 이를 통해 이미지를 다양하게 변주, 조율해보며 보다 고양된 감상을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기념비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이미지**'를 선호한다. 관람객과의 대화를 한층 효과적이고 수월하게 하려고.. 즉, 주된 구조물을 넓은 장소의 중간에 정면으로 배치하고, 수직, 수평을 잘 맞추며, 하늘 등 주변 환경을 조화롭게 배치시켜 주목도를 높인다. 또한, 이미지의 피부를 아름다운 색, 채도, 명도, 질감으로 덧입혀 조형 요소간의 심미적인 조응성을 극대화한다. 나아가, 아크릴이나 유화로 종이나 캔버스에 붓질한 흔적을 촬영, 사진 이미지에 덧입히는 회화적인 표현을 가미하여 매력적인 화면을 연출한다. 이를 통해 이미지와 관람객의 흥미로운 대면을 유도한다. 회화적인 사진의 맛을 더욱 고양시키며..

(3) 의미와 가치: 양가감정의 이해, 융합의 시대정신, 기획 마인드의 중요성, 예술담론의 확장

나는 내가 보는 세상을 내 식으로 잘 표현하고 싶고, 이에 대해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내가 내 작품을 통해 지향하는 대표적인 목표 세 가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적 음미!**' 예를 들어, 나는 내 작품이 사회 구조와 개인 마음, 즉 실제와 인식이 만나면서 만들어내는 처연하게도 매혹적인 '**관조와 명상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둘째, '**지적 활동!**' 예를 들어, 나는 내 작품이 다양한 관점들이 끊임없이 교차되고 연결, 혹은 충돌하면서 무한히 확장되는 다면적이고 복수적인 '**의미화의 경연장**'이 되기를 바란다. 셋째, '**시대정신의 일면!**' 예를 들어, 나는 내 작품이 새로운 시대, 현실을 다시 보고, 사회 구조와 우리의 존재를 질문하며, 나아가 앞으로의 가능성을 상상하고 즐기는 '**이 시대의 자화상**'이 되기를 바란다.

앞에서 언급된 네 가지 이야기와 여섯 가지 방법론을 연결해보면, 내가 제시하는 대표적인 시사점 네 가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상에 대한 음미**!' 즉, '현대 사회의 풍경이 드러내는 치명적인 매력'을 '이미지의 집적', '복합적인 시선', '대립항의 관계', 그리고 '넓고 깊은 광경'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자화상을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다시 말해, 현대 사회는 무한히 확장하고, 복잡 다단하고,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되어 보이는 여러 가치들이 뒤섞여 있고, 이는 엄청나게 거대한 게 숭고하기 까지 하다. 이는 결국에는 생생한 예술적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세상에 대한 고찰**!' 즉, '미디어 문화가 조장하는 끝없는 욕망'을 '복합적인 시선', '대립항의 관계', '넓고 깊은 광경'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미디어 문화의 자화상을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미디어 문화가 조장해낸 비교의식, 욕망과 좌절의 시선, 그리고 너도나도 아우성치는 광고의 바다를 보면, 세상사 정말 얽히고설킨 게 곱씹어 볼만한 일들이 그야말로 차고도 넘친다. 이는 결국에는 다양한 생각의 거리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새로운 시대의 미적 경험**!' 즉, '이미지 구축을 통한 인식적 황홀경'을 '대립항의 관계', '장면의 연출', '넓고 깊은 광경', '조형적인 매력'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미술이 지향하는 시각적 창조 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다시 말해, 여러 요소들의 조합과 변주를 통해 적극적으로 연출된 장면은 찬란한 광경으로써의 매력을 한껏 발산한다. 이는 결국에는 참신하고 생생한 예술적인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새로운 시대의 미적 창조**!' 즉,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통한 큐레이팅의 미학'을 '장면의 연출', '넓고 깊은 광경'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미술이 지향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다시 말해, 총체적으로 극을 조율하는 감독으로써 거대한 광경을 섬세하게 연출하여 모든 걸 스스로 주관해내는 모습을 전면으로 드러낸다. 이는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요소들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예술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내가 추구하는 대표적인 기대효과 여덟 가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대한 광경(spectacle)의 목도를 통한 숭고의 경험**!' 나는 도시의 여러 요소들이 특정 장소에 밀도 높게 집적되어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힘(energy)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의 풍경이 주는 짜릿함과, 나아가 그 이면까지도 느꼈으면 해서.. 둘째, '**장면 제시를 통한 가공의 이야기의 전개**!' 나는 주변의 여러 환경을 거리를 두고 정면에서 목도함으로써 우리들의 다양한 심정을 담아내는 열린 구조로서의 X함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러 이야기를 상상해보며 즐겼으면 해서.. 셋째, '**조형적 변주를 통한 일상의 재발견**!' 나는 주변의 여러 상황을 포토저널리즘(photojournalism)적으로 담아내기 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과장, 변형, 왜곡함으로써 주변을 새롭게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저 스치고 지나갔던 주변으로부터 다시금 의미를 만들어 나갔으면 해서.. 넷째, '**집적된 이미지의 흐름을 통한 정합적인 인식**!' 나는 연관되는 이미지를 상호 간에 잘 조율하고 축적하여 당연히 그럴법하고 충분히 그럴듯하고 어쩌면 그럴만한 하나의 풍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희한하게 아귀가 잘 맞아떨어지는 흥취를 느꼈으면 해서.. 다섯째, **'편집의 마법을 통한 다층 경험'**! 나는 다양한 시공의 이미지를 조합, 조작하여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인식의 풍경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공을 넘나들며 여행하는 묘한 경험을 했으면 해서.. 여섯째, **'환영적 생생함을 통한 직접 경험'**! 나는 내 눈 앞에서 정말로 막 벌어지는 양 주체적으로 실감나게 느껴지는 이미지의 힘을 재생하고자 한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란 말처럼, 이를 통해 스스로 체감하는 자기 경험이라고 받아들였으면 해서.. 일곱째, **'세상을 보는 창들의 물질적 감각을 통한 여기의 재인식'**! 나는 작품의 형태를 다양하게 변주함으로써 사진이 가진 가상적 환영주의와 실제적 물성을 묘하게 관계 맺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야말로 사방으로 튀기는 비물질적인 인식과 지금 여기에 내가 서 있는 물질적인 시공의 관계에 대한 감각을 고양했으면 해서.. 여덟째, **'적극적인 풍경 구축을 통한 주체성의 고양'**! 나는 내 눈 앞에 벌어지는 풍경을 그저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재료로 삼아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을 실현해나감으로써 주체의 창조적인 힘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상은 수동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긍지의 자신감과 성취의 만족감, 그리고 공헌의 뿌듯함을 추구했으면 해서..

다음, 내가 주목하는 대표적인 예술담론 네 가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가감정의 이해'**! 이는 'A는 B다'로만 해석되는 기계적이고 일의적이며 논리적인 대응관계를 넘어서 복잡계로서의 현실을 다의적인 맥락의 바다로써 바라보려는 고차원적인 사고의 발로이다. 예를 들어, 나는 **'자본주의의 욕망이 주는 희망과 좌절, 매혹과 불안'**의 경험을 연민하며 **'현대사회의 풍경'**을 담아낸다. 그 동안 주변에 수많은 건물 숲이 솟아나며 경쟁해왔다. 어린 시절, 1982년 출시된 블루마블(blue marble) 보드게임을 즐기다 보니, 훗날에 건물 수십 개 정도는 거뜰히 내 것이 될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기도 했다. 그런데, 세상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도피할 마음은 별로 없다. 오히려, 내가 사는 사회를 직면하고, 이를 음미하며, 때로는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재미가 쏠쏠하다. 예를 들어, 달콤함과 씹쓸함, 황홀경과 암울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개인적인 의미를 느끼고, 나아가 사회문화적인 의의를 성찰하는 게 바로 그렇다. 다행인 건, 이미지는 내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게다가, 나는 할 말이 많다. 이와 같이 나는 내 고유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더욱 공고히 만든다. 유희의 즐거움도 마음껏 만끽하고.. 나아가, 다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둘째, **'융합의 시대정신'**! 이는 예전에 공고히 수립된 장르 간의 벽을 허무는 저항정신과 자유로운 발상의 발로이다. 예를 들어, 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언어가 중첩된 **'회화적인 디지털 사진'**을 지향하여 현대사회의 **'탈장르적 혼성문화의 경향'**을 보여준다. 나는 어려서부터 회화를 전공한 경험과 뉴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사진이라는 형식을 나만의 언어로 재창조해 왔다. 전통적으로 회화는 빈 화면에서 시작하여 수많은 붓질의 흔적들을 중첩시키며 이미지를 구축한다. 또한 형태, 색상과 더불어 질감의 맛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물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나는 찍는 사진이 아니라 만드는 사진을 지향한다. 회화적인 매력을 사진으로 묘하게 고양시켜 보려고.. 예를 들어 나는 오랜 시간 여러 각도로

촬영하고, 이미지들을 섬세하게 선별, 연출한다. 그리고, 풍경에 보이는 물체를 나의 의도에 맞게 재배치하거나 생략하여 구성의 묘를 살린다. 또한, 이미지의 작은 부분들을 마치 각각의 붓질인 듯 쌓아가며 이미지를 구축한다. 나아가, 실제 붓질의 이미지를 중첩하여 회화적인 질감의 맛을 살린다. 더불어, 작품 이미지에 맞는 최적의 크기를 정하고 액자 형식을 다변화하여 특유의 물성의 맛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나는 예전의 관습과 해묵은 관념을 탈피하는 새로운 내용과 독특한 형식을 추구한다.

셋째, '**기획 마인드의 중요성**!' 이는 사람의 진정한 창조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라는 차이와 변주에 기반한 창의적인 사고의 발로이다. 예를 들어, 나는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하여 후기정보화 시대의 '**상호참조적 경향**'을 보여준다. 나는 보통 사진을 촬영, 저장하고 나면, 마치 전시기획자가 된 양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참조한다. 특정 시공에 전시를 한정 짓기 보다는, 전시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시공을 다르게 연결 지으며 특정 맥락을 형성해 나가려고.. 이는 마치 전시의 기획 의도에 따라 하나의 작품이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새롭게 포장, 제시되는 경우와도 같다. 더불어, 데이터는 상호 대체 등 끝없는 변주와 조작이 가능하기에 나는 최소 픽셀(pixel) 단위까지 모든 조형요소를 섬세하게 조율하여 최고의 장면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때로는 특별한 처리 방식을 도입해 보며.. 물론 이는 작품마다 다 상이하다. 이와 같이 나는 한 편의 극을 총체적으로 연출해낼 줄 아는 감독의 역할을 추구한다. 자기가 맞은 바 임무만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기술자가 아니라..

넷째, '**예술담론의 확장**!' 이는 예술이란 물질적으로 만질 수 있는 예술품이 아니라 '예술하기' 그 자체라는 동사적인 발상의 발로이다. 예를 들어, 나는 내 작품이 작가만의 협소한 정의와 주장을 넘어 보다 '**풍성한 담화체계**'로 읽히기를 바란다. 이는 단일한 정답을 내리는 닫힌 구조가 아닌, 다양한 질문을 하는 열린 담화를 지향하는 태도이다. 물론 작품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즉, 작품이 완성되는 순간, 나의 의도가 불변하는 텍스트로 고정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작품이 읽히는 방식은 그것이 놓이는 상황과 맥락, 그리고 작가로서의 나의 생각과 다른 이들의 감상과 비평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결국, 진정한 예술의 가치는 옳거나 그렇지 않음을 밝히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 기준이 계속 달라짐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며 공감의 깊이를 더하는데 있다. 궁극적으로는 보다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고,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욕구를 존중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작품을 넘어서는 풍요로운 인문학적 통찰이야말로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고차원적인 아름다움을 발현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기제가 된다. 할 일은 많다. 오늘도 나는 수직적으로 수렴되는 의도를 넘어 수평적으로 확산되는 의미의 바다에 희망을 걸고 기왕이면 설레는 마음으로 시원하게 뛰어든다.